

# 광양 전남도립미술관 기획전시 절찬리 진행

송필용 개인전 '물의 서사' '물' 형상화 통해 역사 성찰  
황영성 초대전 '우주 가족...'  
화폭에 근원적 그리움 은유



송필용 작 땅의 역사.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연말 미술관 여행은 광양으로 떠난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송필용 초대전 '물의 서사'와 황영성 초대전 '우주 가족 이야기'를 절찬리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21일까지 이어지는 송필용의 전시 '물의 서사'는 역사의 흐름을 '물'의 흐름으로 형상화한 자리다. 전시에는 1980년대 질곡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작가 초기 대표작부터 신작과 드로잉을 포함한 100여 점이 걸렸다.

송 작가는 전남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목도한다. 이를 계기로 사회를 향한 민중의 목소리를 자신만의 묵직하고 사실적인 회화를 통해 표현하기 시작했다. 담양에서 땅의 역사를 응축해 표현할 수 있는 조형 요소를 탐구했으며 역사의 흔적을 흐르는 물과 폭포로 형상화하는 작업에 집중했다. 과거의 작업이 땅의 역사를 거대한 물의 흐름으로 보여줬다면 이번 신작은 개인의 역사와 삶의 가치에 주목한다.

전시는 시기별 주제의 변화에 따라 3개의 섹션으로 나뉜다. 첫 번째 '땅의 역사'에서는 송고한 역사의식을 기반으로 1980년대 혼란스러운 정국부터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아픈 역사를 상징적으로

로 표현한 작업을 선보인다.

두 번째 '역사의 흐름'에서는 세찬 물줄기로 구현한 작업들을 선보인다. 김수영의 시 '폭포'에서 영감을 받아 폭포의 세찬 물줄기를 통해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고매한 정신성을 전한다. 폭포에서 드러나는 힘찬 필치는 곧은 정신의 소리이자 역사의 시대정신을 대변한다.

세 번째 '심연의 흐름, 치유의 통로'에서는 본 전시에서 처음 소개되는 신작을 내걸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작가의 직관적인 점과 선의 새로운 조화가 눈에 띈다. 무법(無法) 선과 점을 새겨 완성된 물줄기는 개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화한다.

내년 2월18일까지 이어지는 황영성 초대전 '우주 가족 이야기' 또한 진행 중이다.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원로작가 황영성 초대전으로, 1950년대 말 그의 초기 구상회화 작품부터 다양한 매체의 실험을 시도한 2000년대 입체 작품, 현재까지 이어온 최근 작품까지 회화, 설치, 아카이브 자료 등 110여 점을 선보인다.

황영성 작가는 1941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 6·25전쟁 당시 광주에 정착해 조선대 미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



황영성 작 농경도.

전남도립미술관 제공

다. 1965년 나주 영산포에서 첫 개인전을 열고난 이후 1967년 국전에 입선하며 6차례의 특선과 1973년 국전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그의 회화를 한 단어로 꼽자면 '가족'이다. 60여 년간 일관되게 천착해 온 소재 '가족'은 소박한 시골집 가족에서부터 자연의 못 생명들로 확대되고 마침내 세

상 만물의 공생을 담은 '우주 가족'으로 확장된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 5개 전시장에 여섯 개 주제로 구분돼 펼쳐진다. 먼저 1부 '자연주의 구상회화'는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까지 작가의 수업기부터 화단 등단에 이르는 초기 작품으로 구성됐다.

2부 '회색빛 향토서정'은 작가가 말하

는 '회색의 시대'로, 마을과 가족의 개념을 회색조 회화로 변용시킨 1970년대 연작들로 구성됐다.

회색의 시대에서 '녹색의 시대'로 이어지는 전시 3부 '녹색 들녘과 가족'에서는 1980년대 시기 작품들을 선보인다. 주로 마을과 산야를 넓게 내려다보는 부감 시점을 택하면서 싱그러운 생명력의 기운을 완성한 목가적인 녹색의 전원 풍경을 표현한 작품들이다.

4부 '이국여행 고대 문명 탐방'에서는 유럽 곳곳의 해외여행과 더불어 고대 문명 탐방으로 펼쳐지는 작품을 통해 더욱 너른 세상을 향한 작가의 진취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2000년대의 대표작인 대형 설치작품 'Round Family (2007)'가 눈길을 끈다.

이어지는 5부 '만유공존 우주 가족'에서는 다양한 재료와 묘법을 통해 실험적 조형세계를 보여준다. 2000년대 이후의 작품들로 다채로운 조형적 구성을 감상할 수 있다.

6부 '멈춤 없는 화업정진'에서는 지난 날 거쳐 온 슬한 '가족 이야기'들을 회상하며 현재도 진행 중인 작가의 최근 회화 작품들을 통해 대미를 장식한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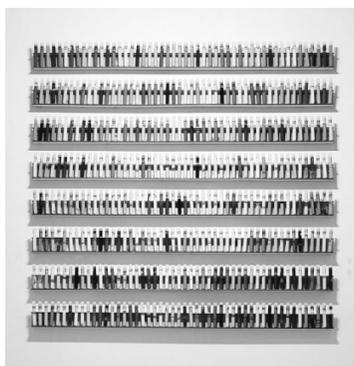
## 제29회 광주미술상 수상 정정하 작가 초대전

19일까지 동구 미로센터

제29회 광주미술상을 수상한 정정하 작가 초대전이 '빛을 모으는 또다른 방법'이라는 주제로 19일까지 동구 미로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정정하 작가가 지난 6월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이사장 오건택)가 주관하는 제29회 광주미술상을 수상하면서 마련된 자리다.

전시 제목이기도 한 '빛을 모으는 또다른 방법'은 정정하 작가가 페인트 가게에서 일하면서 받은 영감을 평면 추상 또는 설치작품으로 표현한 시리즈를 말한다. 정 작가는 어떤 사람과의 인연과 고유한 에너지를 색과 빛으로 빚대 화폭에 기록한다. 특히 페인트 매장에 일하면서 접하는 페인트, 레진, 건축용 자재 등의 매체를 활용해 색을 테마로 한 추상작업과 설치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전시에서 재료의 특성이 강한 두



정정하 작 '라이트 픽셀'.

툘한 레진이나 알루미늄 판 등 하루의 인상을 색으로 가둔 추상작업 '빛에 대한 연구', 수많은 사람과의 인연을 시험관에 채집한 설치작업 '라이트 픽셀', 은은한 작은 글씨가 특징으로 누군가에 대한 기억을 색채로 부활시킨 작업 '흡수와 반사' 시리즈, 뾰족한 모양의 작업을 반복적으

로 설치해 두려움을 해소하고 극복에 대한 의지를 묘사하는 작업 '아름다운 두려움' 등 정 작가가 펼쳐왔던 작업을 감상할 수 있다.

정정하 작가는 "작업들은 다양한 색깔들로 매체 안에 가둬져 있다. 나의 작업은 색을 가두어 기록하는 것이다. 그 색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에너지이다. 그 에너지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들의 성실성이다. 그들의 에너지는 빛과 동일시되며, 그 빛은 그들의 마음대로 되지 못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긍정적 메시지이다."라고 말한다.

오는 19일 정 작가가 출연하는 '작가와 대화'가 문희영 예술공간 집 대표의 진행으로 열린다. 정정하 수상작가전에 이어 광주미술상 특별상을 수상한 서영기, 강지수 작가의 2인전도 같은 장소 미로센터에서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다.

도선인 기자

## 전남문화재단, 20일 무안서 '재즈브런치 콘서트'

이병주 밴드·캐롤 등 연주

전남문화재단이 송년 특별공연 '재즈브런치 콘서트'를 오는 20일 오전 11시 남도소리윙터(무안 남악)에서 연다.

이번 공연에는 '한국적인 재즈'라는 평을 받고 있는 이병주 밴드가 출연해 팝 명곡, 샹송 등을 연주한다. 이효정 부산예술대 외래교수가 재즈 보컬로 함께 한다.

첫 연주곡은 1970년 발매돼 국내에서 '협한 세상 다리가 되어'로 알려진 사이먼

앤 가펩클 대표곡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를 이병주 밴드 특유의 섬세한 에너지를 담아 선보인다.

이어 들려주는 '오파토'는 보사노바의 진수를 보여주는 곡이다. 물 위에서 헤엄치는 오리, 거위, 백조의 모습을 브라질 리듬과 같은 경쾌하고 귀여운 음악적 유희로 표현한 노래다.

더불어 스타인이 작곡한 대표 캐롤 'Let it snow (렛 잇 스노우)'와 머라이어 캐리 크리스마스 시즌 1위곡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를 들려준다.

이밖에도 빌리 홀리데이가 불러 대중적으로 알려진 고전 커버 곡 '러비 맨', 샹송의 여왕 에디트 피아프의 시그니처 곡 'La vie en rose(라비앙로즈)'를 재즈 스윙 버전으로 연주한다.

뮤지컬 'The New Yorkers(더 뉴욕커)'에서 불리진 후 고전이 된 'Love for sale(러브 포 세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연주한다.

공연시간은 총 60분이다. 관람 예약은 남도소리윙터 누리집(http://namdosori.or.kr)을 통해 가능하며 티켓은 무료다.

도선인 기자

**어린이 무용 '루돌프' 23~24일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ACC재단 어린이문화원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빨간 코 사슴이 아닌, 엉덩이가 빨간 원숭이 '루돌프'와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23~24일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어린이무용 '루돌프'를 선보인다.

ACC재단이 기획한 난생처음 시리즈로 진행되는 '루돌프'는 국립현대무용단 '어린이·청소년 무용 레퍼토리 개발 프로젝트'의 첫 작품으로, 고블린파티의 이경구 안무가가 어린이 관객을 위해 만든 공연이다.

이번 작품은 겁 많은 원숭이 '루돌프'가 새로운 세상과 친구들을 만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손과 다리, 몸으로 동물을 표현하고 숲

의 형상을 만들어 내는 무용수의 움직임, 풍부한 색감과 다양한 이미지에 소리가 더해지며 크리스마스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공연을 보는 동안 재미있는 의문에서 시작해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고, 원숭이 루돌프의 몸과 마음을 따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된다.

'루돌프'는 오는 23일부터 24일 오후 2시 총 2회 공연되며, 관람료는 1만5000원이다. 예매 및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www.ac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ACC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다양한 놀이와 체험·예술적 창작활동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